

창세기(18)

창세기 3 장 1 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에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혹 죽을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 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보통 사람들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얘기합니다. 역사 History 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탄에 의해 철저하게 반역을 당하시는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큰 movement 하나가 New age movement 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해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설교만 해도 종말론자라고 딱지를 붙여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을 다시 찾게 되면 대개 그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현세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브처럼 행동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닙니다. 최초로 저질러진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한 행위입니다. 더한 행위는 두 번째이고 첫 번째 저질러진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삭제한 행위입니다.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대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 장에 나오지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을 보세요. ‘없음’이란 말이 13 군데나 있는데 특별히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요한일서 5 장 7 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교활하게도 ‘없음’이라고 써 놓지 않고 5 장 6 절 하반절을 7 절에다 붙여놓았어요.

사실 기독교 기독교론이라는 것이 뭐니까? 신약의 기독교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독교론, 왜 기독교가 됐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불교와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님을 성인 중 하나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으로 들어갔을까? 어떤 잘 믿는 사람도 초창기에 주님을 믿을 때, “예수라는 분은 참 아름다운 분인데 그 말씀들은 안 믿어져요. 그 말씀들은 뭔가 뜻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처럼 위대하신 분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랬던 과거가 있다고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없음’이라고 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주의 종들이 ‘없음’을 읽으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초 인간의 죄는 단어 하나를 삭제했고, 단어 하나를 삭제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영똥한 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만지지도 말라.”를 붙였어요. 두 번째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붙이는 거죠. 그 붙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그 속에 뭔가 원망이 섞이고 불평이 들어갈 때 결국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 않다.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오하다. 그러면서 ‘교황무오설’ 갖다 붙였죠?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다 그리고 승천했다는 ‘몽소승천설’(蒙召昇天說), 이런 것을 한 두 가지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리설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성경은 안 가르치고 교리부터 가르치니까 그것을 맨 처음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 도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도적이 이 땅에 처음에 온 것이 언제입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니까 죽게 되어 있지요. 죽은 혼들은 결국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육신을 무덤에 집어넣는 것처럼 죽은 혼을 집어넣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버려두어도 되어 불이 필요 없지만 혼은 불로 계속 태워야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가는 영원한 장소는 지옥이고 몸이 가는 장소는 무덤이죠. 그런데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와 증인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겁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짝 넘어가서 맞아 맞아 하며 “그럼 그렇지, 지옥은 없어. 괜히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니까.” 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서 빼고 더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Living Bible 같은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풀어 쓴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란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청소년들이여! 이 성경 참 좋은 성경이라 내가 권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구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된 겁니다. 그 성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재미있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색을 해서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 장 이후부터 쪽 나오는 거 있지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대하듯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만 온전히 지키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지키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먼저 의문을 주고, 의문을 주니까 그 여인은 말씀에서 빼고 또 그 말씀에다 더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참 묘한 말을 한 겁니다. 교활한 겁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말도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참으로 묘한 얘깁니다. 사람에게 의문을 던진 다음에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게 만들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게 만들어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결국 인간의 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반역이 생겼지요. 먹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때문에 거스르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존재는 여기 말하는걸 보면 거의 80%이상은 사탄도 제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눈이 열리고 네가 신처럼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진 맞습니다. 너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렸지요. 육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것인데. 그 다음에 “신들처럼 된다.” 이것도 맞는 애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 신들처럼 되었어요. 나도 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도 사탄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속에는 진리가 80%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체가 다 거짓말이면 속지를 앓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속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는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 과거 한 백 년 전부터는 배교의 역사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이 여기고 인간이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신경들을 안 씩니다. 이것이 요즈음의 세대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이야말로 양심선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교하는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사역하는 종들은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다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기들이 신처럼 되어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따지고 이런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큰 교회 전도사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 “아~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오십만 명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목회하다가 쫓겨났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브의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낱말 한 낱말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라 하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나 하며 원망 섞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종해? 이런 원망 섞인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 말씀들을 행하고 교회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축복일 텐데. 어제도 크리스토 목사가 엘사나에 가서 마약 환자들이 사역한다고 하니까 부인이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당신 그 일을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었대요.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목회자 종을 보내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 당신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돌이켜 복종하기로 작정하니깐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나이 40 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주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원망하다가 다 죽었지요. 원망하다가 다 놓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브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기해봤자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만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66 장 2 절에 뭐라 했습니까? 66 장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쉬실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 다음에 보세요.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배시간만 엄숙하고 점잔을 빼고 그러는데 옛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는 마당만 밟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아주 내가 피 냄새만 나도 지겹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실 곳이 없으신 것이죠.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없다. 설교 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설교가 끝나고도 앉아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멕시코 교회에 가보면 설교 끝나고 자기들이 나와서 통회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 시간이 있어요. 나와서 무릎 꿇고 통회 자백하고 들어갑니다.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통회하는 자가 말에 떠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보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가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항상 내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찾아야 해요.

저는 조그만 간증이지만, 지난주에 어느 집에 심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조그만 헌금을 했어요. 아~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동차 문이 열려 그 헌금 봉투가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내 죄가 큰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잘못 때문에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또 그것을 쓸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고 통회 자백했는지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성경책이 툭 떨어졌을 때 깜짝 놀랐데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3 장을 통해서 3 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심정을 알려서 정말 주님이 안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 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세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변개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순전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은 영들을 살리는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